공동체 소식

연중 제2주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이 시대에 하느님의 평화를 주소서.

▣ 1월 기도지향

+ **우리 본당 공동체**
+ **본당 공동체의 각 가정**

▣ 캔사스 대교구 내 이민자 미사

- 일시 : 1/17(주일) 오전 11:00
- 참석 : 평협위원들 및 참석을 원하시는 분

▣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2016. 1. 23 (토) 오후 05:30.

▣ 평협회 안내

- 일시: 1.24(주일) 교중미사 후

▣ 주님 봉헌 축일(2.2) 초봉헌 안내

- 초축복 예절 일정: 1. 31(주일) 교중미사 중
- 봉헌초 값: $4/개
- 내용: 제대초와 가정초를 각각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기도 신청에 대하여

- 내용: 가정기도를 원하시는 가정은 전례부를 통하여 '가정기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기도의 지향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더욱더 훌륭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62	513	177	2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문예나 요안나	안광민 야고보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다음주일	고평원 프란치스코	정병훈 보니파시오
	차민서 임마누엘	문호진 안토니오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박혜정 카타리나	문석찬 요셉
		문문주 엘리사벳
차주	정수한 베드로	김화년 요안나
		박혜정 카타리나

▣ 애찬 봉사자

금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차주	김명은, 한춘희, 안복선

▣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차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1/10	80명	375불	1,700불
이우석, 홍순익, 김정원, 김대성, 이영민, 김태중, 차호섭 (총 7세대)			

연중 제2주일 |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 2016년 1월 17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는 당신 친히 마련하신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사랑을 나누도록 불러 주십니다. 함께 주일 미사를 봉헌하는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 깊이 일치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화해설

천지창조-빛과 어둠을 가르시다
(Michelangelo Buonarroti, 프레스코 1511, 시스티나 경당 바티칸)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창 1,3-5)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이렇게 시작한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미켈란젤로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모습을 강력하면서도 역동적으로 표현한다.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2,1-5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화 답 송 :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주님께 드려라, 뭇 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

○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겨레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이시다.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2,4-11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1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셨다.>

쉐 마

참된 포도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가운데 일곱 개 기적만을 전해 줍니다. 이 기적들은 모두 예수님의 신원을 드러내어 주는 표징으로 그 중 첫 번째 표징이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입니다. 무엇이든 처음 나오는 것이 중요하듯 카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는 요한 복음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를 처음 읽으면 곤란에 처한 신랑 신부를 위해 성모님께서 청하자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이야기로 들립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요한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는 점을 의식해야 합니다. 요한은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을 담담하게 전하는 듯 보이지만, 그 이야기 곳곳에 상징적인 요소들을 담아둔다는 사실을 놓치면, 요한이 본래 전하려는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대개 구약 전통의 다양한 요소들을 바탕에 깔고 상징적이며 중의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기적 이야기에 나오는 상징적이고 중의적인 표현들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복음에 나오는 혼인 잔치라는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을 혼인 계약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 점은 오늘 1독서의 이사야 예언서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부인이기 때문에 혼인 잔치는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 이외에 다른 것에 빠지게 되면 하느님을 버리고 다른 이와 간음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혼인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가 있는데 바로 포도주입니다. 구약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주님의 심판, 곧 주님의 날이 다가왔다는 의미입니다(신명 28,39 아모 5,11). 포도주가 떨어지면 더 이상의 잔치는 불가능해집니다. 성모님이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주님의 날이 다가왔음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포도주를 다시금 넘쳐흐르게 해 달라는 간청으로 보입니다.

실제 아모 9,13은 주님의 날이 오면 새로운 포도주가 흘러넘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포도주가 흘러넘친다는 것은 메시아 시대의 상징이며,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 '포도주가 없다'는 성모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포도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메시아이며, 지금이 바로 포도주를 만들어 줄 때라는 일종의 간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기적에서도 그러하듯 메시아 시대의 기쁨을 미리 맛보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잘 알고 계셨던 성모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을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만 비로소 참된 포도주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마다 메시아 시대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복음서의 대가 가운데 하나인 킬 갈렌 신부의 해설을 나름대로 각색한 것입니다(「최고의 성지 안내자 신약성경」, 염철호 옮김, 바오로 딸, 2012, 50-55 참조). 이런 식의 해석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억지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 복음사가가 지니는 표현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설명입니다. 오늘 복음 내용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메시아 시대가 열렸음을, 또 그것을 처음으로 알아보고 고백한 분이 성모님임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 염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주춧돌

세리와 바리사이의 기도

어느 날 인적이 뜸한 시각,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앞서 올라간 사람은 바리사이였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열심한 사람들 무리에 속하면서 율법을 잘 지켰기에 모든 이들이 훌륭한 사람이라 칭송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당당했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했지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고, 모든 이들이 가까이하지 않으려는 부정부패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리사이는 무엇이라 기도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8,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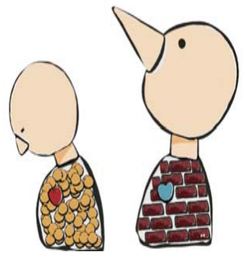
당시에 세리는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면서 사람들이 모두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는 자신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서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뒷쪽 기둥 아래 간신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손가락질 당할까 봐 조바심이 나고 불안하여 세리는 기도도 마음껏 바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하느님께 고개를 들어 기도하는 것이 무척 힘겨웠습니다. 세리는 하느님께 어떻게 기도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8,13**

예수님 시대에 세리들은 자신이 저지른 부정과 죄 때문에사회에서 배척받고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과중한 세금을 징수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같은 민족의 피땀을 착취하는 악질적인 사기꾼으로 낙인이 찍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뿐 아니라 세리의 가족들까지도 미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은총을 입고 의롭게 되어 돌아갔을까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8,14**

세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느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느님은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을 절대 내치지 않습니다. 어떤 죄라도 뉘우치고 통회하면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 마음에 든 사람은 교만한 바리사이가 아니라, 죄인이라 생각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사이의 가장 큰 잘못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하느님은 사랑하십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 묵상

오래전부터

극적인 변화는

100%가 바뀌는 변화가 아닙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무리 해도 채울 수 없던

그 1%가 채워져 완성이 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 2,7)

- 임의준 신부(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